

에너지 단신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03-'05) 확정·공고

전력산업기반기금

3년간 총 3조 1,176억원 지원키로

산업자원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3년간)의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 8월 21일(수) 최종 확정·공고했다.

금번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2000년 12월 23일)에 따라 신설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중기 추진 방향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이는 과거 한전에서 수행하던 전력 수요관리, 연구개발, 전기안전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의 공익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02. 6월 화력회사중 서부발전이 최고수입 기록

태안화력 6호기 준공 기저설비 증가 기인

6월중 한수원을 제외한 화력회사중 서부발전이 전력거래에서 최고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금년들어 태안화력 6호기의 준공으로 기저설비의 증가와, 수도권 계통제약에 따른 서인천복합 및 평택복합의 발전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상반기 누계로는 설비용량이 제일 큰 동서가 최고를 차지하였고 중부가 제일 낮았다.

6월중 최대전력은 4,131만KW임에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한 전력계통 운영으로 예비력은 784만KW인 19.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월드컵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TV부하는 최대 20만KW의 증가가 있었으나 산업용 및 일반용 부하가 더 크게 감소하여 월드컵으로 인한 부하증가는 없었다.

예컨대, 주간경기인 대 미국전때 20만KW의 TV부하증가가 있었으나 산업용과 일반용이 각각 240만KW와 340만KW가 감소하여 총 560만KW의 부하가 감소했다.

한편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46.44원/KWh로 지난해 평균 47.87원/KWh보다 낮게 형성되어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야전력수요의 급감으로 동 시간대(02:00~08:00)에

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한계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하계피크시 장기적인 이상고온이 이어지지 않고 한전의 수요관리가 효과를 나타낸다면 전력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적극 나서

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조치계획」 수립·추진

환경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상하수도 및 국립공원 시설피해 복구와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종합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및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상하수도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비상급수조치를 취하고, 김해시 1,916세대 6,168명에 대해 가배관 부설, 급수차(4대), 먹는샘물을 이용, 식수공급과 함안군 법수면 9개 지역 442세대 1,114명에 대해 급수차(3대)를 이용, 일 25톤 공급했다.

탐방로 등이 유실된 국립공원의 경우는 우선 접근금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항구 복구할 계획이다. 침수지역 수해쓰레기와 댐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수해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 3개 시도 침수지역의 수해쓰레기 7,408톤 중 2,169톤(29.3%) 수거·처리를 추진중이며, 소양·충주 대청 등 12개 댐의 부유쓰레기 4,524톤 중 500톤(11.1%) 수거했다.

수해복구 기간 중 오·폐수시설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하고, 수해지역의 상수원 수계에 위치한 오·폐수 다량 배출업소와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수해 인한 제2의 가스사고 예방 전력

가스안전공, 집중호우지역 가스시설 긴급복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오홍근)는 전국적으로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세대에 대한 가스시설을 점검하는 등 수해로 인한 제2의 피해 감소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8일까지 6일동안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7085 세대에 대해 133명의 긴급복

testo KOREA

New

testo 350M/350XL

고객의 광범위한 측정 사양을 만족시키고 보다 사용이 간편해진 휴대형 연소가스 분석 시스템 testo350

350M | 최대 4개 측정모듈 구성 가능(O₂, CO, NO, NO₂) 온도, 풍속, 차압, 상대습도 계측 통합출력시스템, 가스전처리장치 내장

350XL | 최대 6개 측정모듈은 업그레이드(NO, NO₂, 트리거 등) CxHy, H₂S 측정모듈 기능 추가

테스토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등포구 영등포동 21(인삼동) 100
TEL: 02-672-7200 / FAX: 02-679-9863
http://www.testo.com / E-mail: testo@testo.com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동 132-10 E-DAEJANG 4025
TEL: 052-227-5551 / FAX: 052-227-4269

BEXCO BUSAN
부산광역시 - 컨벤션센터 개관 E15SEC2002
2002.5.14(화) ~ 5.17(금)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BEXCO)

- 모든 종류의 산업용 연소가스 조절
- 순수 천연가스의 농도를 보다 장시간 측정
- 모든 종류의 작업 노의 환경 점검
- 불꽃타입의 열 발전기와 같은 고정된 모터 관리
- 연소가스 뿐만 아니라 덕트내의 가스압과 가스풍속 점검



'세녹스' 제조·판매 조만간 근절예상

국세청,
"제조업체(주)프리플라이트에
휘발유세금 부과" 방침결정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이후 '세녹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와 관련 이를 제조·공급한 (주)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판매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토록 조치했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에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한 것을 취소"토록 요청했으며, 행자부에 "위험물저장취급소에서 세녹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주)프리플라이트와 판매주유소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해 세녹스 판매물량에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구지원반을 투입,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피해시설 210가구에 대해서는 LP가스용기 2개를 비롯해 압력조정기 85개, 퓨즈콕 42개, 호스 196m 등 195만여원 상당의 가스용품을 제공하는 등 긴급복구를 완료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특히 경상남도 합천군 관내 황강의 범람으로 수재민들이 공동숙식하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 LP가스용기 및 조정기 등 가스시설 일체를 무료로 설치, 수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침수로 인한 가스시설 긴급점검 및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경남지역 가스용품 제조업체인 (주)화영상사는 조정기(500개), 호스(100롤), 체결밴드(500개)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관련 업계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구반 편성과 함께 상황근무를 강화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침수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 '경유車 최대'

오염물질 감소 위한 세제개편 필요

경유車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LPG에 비해서는 30배가 넘고 CNG에 비해서도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정의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은 만큼 유류(油類)가격의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LPG는 145원/ℓ, CNG는 121.6원/㎡, 휘발유는 163.9원/ℓ인데 반해 경유차는 무려 492.4원/ℓ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크게 증가해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박사는 이같은 현상이 대기오염 부하가 높은 경유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유종간 상대가격구조의 왜곡 때문이라며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부화(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세율 강화)를 통한 에너지가격구조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경유가격을 낮게 평가한 2000년도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안은 Bottom-up 방식이 아닌 Top-down 위주의 목표를 설정했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 유도보다는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에 치중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신문>

한국주도의 가스압력용기 국제표준 제정

국제표준화기구(ISO)
"가스압력용기 기술위원회"
서울에서 개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고압가스용기 설계·제조에 관한 기술 위원회(TC58/SC3) 2002년 총회가 9월3일부터 4일간 워커히호텔에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개최된다.

미국, 유럽무역협회, 영국 등 19개국이 50여명의 국가표준기관 전문가와 공인검사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9건의 제품표준(사용용도별, 재료별)과 2건의 검사방법을 제정기 위해, 각국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압력용기 기준(ISO/DIS 20703)이 작년 총회에서 초안(Committee Draft)으로 승인받고, 이번총회에는 준국제표준(Draft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심의를 받는다.

앞으로 최종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심의를 거쳐 ISO의 정식 표준으로 채택이 예상되는 내년이후에는, 강재(鋼材)LPG용기를 경량화한 대체품목으로 우리나라의 알루미늄제 용기가 국제시장에서 독점에 예상되는 유리한 입장에 있게된다

http://www.ba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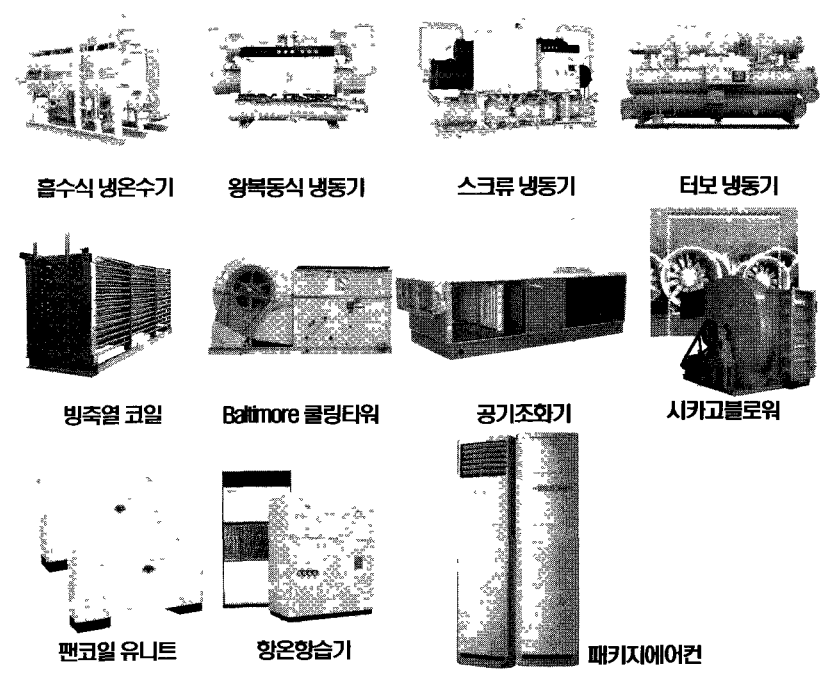


PAN은 범양의 영문표기인 Panocsan의 첫음절을 형상화한것으로 범친화적인 기업관과 초일류 냉동공조 기업을으로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초일류 냉동공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한의 기술과 가치의 추구로 40여년 외길을 걸어온-범양냉방
풍요한 세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힘찬기업
제2, 제3의 도약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왕복동식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빙축열 코일 Baltimore 클링터워 공기조화기 시카고롤로워
팬코일 유니트 왕온양습기 패키지에어컨

범양과의 만남은 당신의 민족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센터: 102401-4321, 555-0101(교:761~763) * 클로버서비스: 080-022-8815-6